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만나는 문학 전시

청년문학예술단체 '공통점' 'RE:VERSE' '공간과 자간' 주제 내년 1월까지 단체 아카이브 전시 시·소설 모티브 일러스트 삽입



청년문학단체 '공통점'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문학 전시 참여작가 유이우의 '행인과 자동차'를 모티브로 제작한 일러스트.

지난 2017년 독립출판물 발간으로 시작해 꾸준히 문학무크지를 발행해오고 있는 청년문학예술단체 '공통점'이 온라인으로 문학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언택트 시대 문학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작품 하단에 글자 수와 줄 수를 캡션으로 넣는 등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을 새롭게 모색한 것. 공통점 웹마인 김병관, 김현진, 조은운이 기획과 일러스트 제작을 맡았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비교적 작품 발표 기회가 적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독자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동안 공통점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든 독자와 더 많은 작품을 공유하기 위해 웹진 '공통점 아카이브'를 제작해 운영해왔다.

웹진은 공통점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문학작품을 읽고 있다. 지난 8월 시·소설 그룹 '머피'와 협업으로 준비한 전시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되자, 웹진을 통해 온라인 전시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언택트 시대 매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인문상상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RE:VERSE'와 '공간과 자간'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RE:VERSE'는 그동안 작업했던 작가들을 섭외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비등단 작가나 광주지역 작가들 섭외해 이들의 활동을 조명했다. 'RE:VERSE'에는 sjxkfk(필명), 김원경, 신혜아림, 양소정, 이기현, 이미지, 이서영, 정주리 작가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걸어온 돌아보자는 뜻으로, 지난 4년 동안 공통점과 함께했던 작가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공간과 자간'은 언택트 시대 활자예술과 공간의 의미에 주목한다. 코로나로 인해 의사소통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공간 의미가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활자예술인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8명의 시인이 작품으로 표현했다. 필진

으로 김연덕, 김코, 모시, 배시은, 신혜옥, 안태운, 유이우, 의현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의 책을 발간하거나 독립출판물을 매개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문학 전시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공통점 아카이브(commonpoint.kr)에 접속해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 감상 후기를 보내는 독자에게는 주점으로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프로젝트 기획자 조은운은 "사람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회복되는 한편 지역 독자들의 문학예술 향유는 물론 지역 내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통점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작가들로 구성된 문학전문 예술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매주 합평 모임을 열고 문예지를 발행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테너 최원희



소프라노 서선영



소프라노 권은주



테너 강요셉

송년엔 명작 오페라 '라 보엠'과 함께

30일~12월1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광주시립·국립오페라단 공동 제작

시대를 초월한 명작 오페라 '라 보엠'이 송년을 장식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이 30~12월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국립오페라단의 첫 공동 제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12월 11일~12일)에 앞서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범로(광주시립오페라단 선임 예술감독), 세바스티안 랑 레싱(지휘), 김숙영(연출)이 참여하며, 유럽 콩쿠르와 오페라 극장을 석권했던 오페라 스타들이 낱말 달라며 출연한다.

30일 공연은 차이콥스키 콩쿠르 여성 성악가 부문에서 우승을 거둔 서선영이 미미를 맡고, 해외에서 높은 기량과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테너 강요셉이 로돌포를 맡는다. 12월1일 공연에서는 독일 만함임 오페라 극장의 전속가수인 권은주와, 올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데뷔한 테너 최원희가 각각 미미와 로돌포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무제타는 소프라노 김유진·장마리아가 연기하며, 마르첼로역은 정승기·조재경이 맡았다.

'라 보엠'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푸치니가 앙리 뒤르즈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 풍경'을 바탕으로 작곡한 전 4막의 오페라이다. '보헤미안 소녀(Bohemian girl)'라는 뜻의 '라 보엠(La Boheme)'은 보헤미안 사람처럼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낭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19세기 파리의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예술이라는 교감으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청춘, 아픔 그리고 사랑을 그린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파리 어느 뒷골목 가난한 연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가슴을 찌르는 주옥같은 아리아의 선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주요 아리아로는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 손', '무제타의 왈츠' 등이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케스트라로 참여하며 워너오페라합창단, 메트로오페라합창단, 광주루치안티어린합창단이 협연한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좌석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공연시간은 총 110분(인터미션 미포함)이며, 8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다. 티켓 가격은 V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7890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백양사·다낭...국내외 여행 통해 서정 형상화

여수 출신 김정희 시인 '섬이 물꽃이라고?' 펴내



작품도 있다. "물 위를 걷는 풀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오래된 추억도 없이/ 여기고 짧은 생을 이제 지우려 하네"('물 위를 걷는 풀꽃' 중에서) '물 위를 걷는 풀꽃'에선 작고 하잘 것 없는 식물들 바라보는 화자의 여리지만 담담한 내면의 풍경이 느껴진다. 생각의 깊이가 서정과 맞물려 빛어내는 단아한 아우라다.

한편 김정희 시인은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문학공간'을 통해 문단에 나왔다. 시집 '푸른 계단', 산문집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을 펴냈으며 (지)지역문화교류재단호남재단의 '장'과 광주문화원연합회 '컬쳐프리즘'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현재 '원탁사회', '죽란시'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주문인협회 상임부회장과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도 활동 중인 여수 출신 김정희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섬이 물꽃이라고?'(시와사람)를 펴냈다.

8년 만에 펴내는 작품집에는 나이 들면서 만나는 쓸쓸함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백양사, 방월당, 지리산, 소록도, 만취정, 월정리, 양림동, 사정암, 다낭, 양곡로 와트, 등 지역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여행을 통해 얻은 서정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움의 정서가 인간 존재의 원초적 슬픔에 투사돼 있어 은은한 빛을 발한다.

광주민중항쟁과 세월호 비극을 형상화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비극성을 읽어내지만, 이면에 드러워진 인간의 욕망과 이로 인해 비롯된 슬픔의 정서를 응시한다.

한편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감동과 풍경을 그린

전시지원공모전 작가·단체 모집 광주문예회관 25~27일 접수

광주문예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2021 전시지원공모전에 참여할 작가 및 미술단체를 모집한다.

상반기 공모는 미술단체 3팀, 개인(작가) 2명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 기준은 단체는 창단 1년 이상, 기획, 정기전 등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작가)는 개인전 2회 이상, 장르 제한 없이 시각예술 전 분야 신청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할 작가 및 단체는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또는 최근 3년 이내 도록)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5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상반기 공모전시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단체 및 작가는 갤러리(416㎡) 무료대관 및 전시 홍보, 작품설치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동전통문화대상' 문화유산 부문 이종일·미술 오석심

특별상 등 총 11명 선정 문화전당서 다음달 2일 시상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주최하고 대동문화재단운영위원회(이사장 허정)가 주관하는 제2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동전통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열고 문화유산부문 대상에 향토사학자 이종일씨, 미술부문 대상에 한지공예가 오석심씨를 선정했다. 공연부문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어 선정되지 못했다.

특별상 한우물상 부문 공연연출가 김승덕, 귀족 수도박물관장 김재원, 한식미장 문병규, 제화장 임준찬, 우도농장 장호준 씨 등 5명이 선정됐고, 미래인재상 청년부문에는 한지공예 고보경, 국악 김유민, 황아림, 공예 양성근 씨 등 4명, 미래인

재상 청소년부문에는 한국화 이은지 양을 비롯해 여무용 김민규, 이근, 국악 김하진, 이지훈, 판소리 심다울·장영애 양 등 7명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특별상 한우물상에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총 상금은 2600만원 규모다.

1995년 창립 이래 25년 동안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동문화재단이 문화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제정된 '대동전통문화대상'은 장인과 예인의 한 길에 매진하면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격려하는 상이다.

특히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금을 바탕으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전통문화 시상으로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제니골드(귀금속카페)</h3> <p>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용에이드, 진저리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소발생기대어 제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동스쿠터 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 서암대로55 (신안교앞 고은@상가층)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법설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행사, 고소경,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광세탁소</h3>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법무사 김은희사무소</h3> <p>목포시 정의로26-4 범초하우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웅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준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철·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평화이사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린스파, 업소용제척 천갈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갈이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분위 ☎ 062)233-5155, 010-3615-5155</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기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